

이수민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연극

36(목)~38(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38(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dy/7508

작가노트

- 이수민

Auto fiction

자전적인 동시에 허구적인 극 짓기

가슴에 암을 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충격이었지요. 충격은 병원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을 제거하려고 입원한 병원에서 암을 앓은 가슴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나온 환자들을 만났거든요. 배액관으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들이 물었습니다. *나, 잘한 걸까?*
가슴을 잃어버린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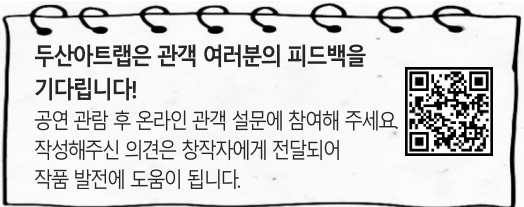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넣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눈이나 손가락을 (병으로) 잃은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부분이 훌륭하고 괴이하며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매력 느껴지지 않으니 당장 (상처가 낫기도 전에) 인공 보형물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모두 소유 기능밖에 없는 지방 덩어리를 병든 가슴에서 잘라낸 여성들은 암을 진단받자마자 성형외과로 연계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실리콘 보형물만 넣으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넣었잖아요.”

졸리의 가슴이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재건 수술을 고민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알지요. 그녀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에 가슴을 모두 절제하고 실리콘을 넣었다는 사실을. 그 경험에 대해 졸리는 칼럼을 썼습니다. 실리콘으로 여성성을 회복했고,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졸리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메카 할리우드의 배우지만 똑똑한 감독이기도 하고 난민 구호에도 앞장서니까. 졸리를 따라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암을 앓은 가슴에 실리콘을 넣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슴에 대한 이야기

부제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출노트

- 이라임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그 책임 또한 개인의 것이라지만, 선택의 중요도가 커질수록 그것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리콘 보형물 삽입을 통한 가슴 재건 수술'이라는 아주 특정한 선택과 이 선택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를 다룹니다. 안전성에 대한 정보, 여성의 가슴에 대한 인식, 환자들의 경험담,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까지. 직접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작품을 통해 암으로 가슴을 잃은 환자들이 놓이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가까이 서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 사회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가 이수민

연출 이라임

조연출 박승현

배우 김민주 김현빈 신소연 이아라 이주협

무대 디자이너 김나은

조명 디자이너 전하경

음악 감독 홍석영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